

<10.16873/tkl.2023. 95. 12>  
한국문학논총 제95집(2023. 12) 179~209쪽

## 박목월의 초기 시에 나타난 귀일(歸一)의 상상력 연구\*

- 동양 미학과 기독교적 정신의 지평 융합을 중심으로 -

김 정 수\*\*

### 차 례

- |                              |                      |
|------------------------------|----------------------|
| 1. 서론                        | 4. 삶의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 |
| 2. '잦아듦'의 자연 이미지와 숙명으로서의 유한성 | 부여와 초탈<br>- 결론을 대신하여 |
| 3. 무(無)의 근원성과 관련한 동양적 사유와 귀일 |                      |

### 국문초록

박목월의 초기 시세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립 구도는 ‘동양 미학적 성격/기독교적 세계관’이다. 그런데 저 연구사적 대립 구도를 뒤집어 생각하면 박목월의 초기 시가 동양 미학적 성격과 기독교 정신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른바 기독교 정신의 토착화와 관련한 대표적 예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고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1139).

\*\*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기독교 정신이 동양적 사유와 결합하여 창출하는 박목월 초기 시의 미적 상상력을 고찰하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초기의 박목월이 주로 형상화한 자연 이미지는 만물이 차차 잣아들어 무화(無化)하는 ‘잣아듦’이다. 이 이미지는 이른바 낭만적 아이러니를 함유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초기 시가 병든 영혼의 자폐적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평가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한 결과이다. 그러나 ‘잣아듦’의 자연 이미지를 통해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였던 것은 속절없이 허무하며 애달픈 세상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나그네』) 마음이다. 여기에는 차차 잣아들어 소멸해야만 하는 그 존재론적 숙명이 사실은 세계의 근원으로 귀일(歸一)하는 충만한 과정일 수 있다는 동양적 깨달음과 만물이 잣아들 듯 자신을 가난하게 비우고 그 빈 자리에 신이 거하시길 기다리며 ‘초탈’할 때 비로소 은총이 성취될 수 있다는 기독교적 신앙이 모두 들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목월의 초기 시가 과도한 주관성에 함몰되어 패배주의적 감성을 드러냈다거나 지극히 관념적인 달관에 기대어 손쉽게 현실을 초월하고자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일종의 자기 구원으로 작용하는 능동적 초월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삶을 절대자에게 맡긴 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생의 고난과 직면하였을 때 귀일할 수 있다는 융합적 사유가 시세계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박목월, 초기 시, 귀일, 초탈, 동양 미학, 기독교적 정신, 지평 융합

## 1. 서론

지금까지 박목월의 초기 시세계는 대체로 자연 친화적이고 토속적인 서정시로 이해되어왔다. 서구 문명의 반대편에서 한국적 자연을 탁월하게 형상화하였으며 동양 미학적 전통을 새로이 계승하여 자아와 세계가

내밀하게 교감하는 경지를 지향했다고 해석되곤 했다. 이 과정에서 박목월의 초기 시는 전통 서정시의 시원으로 자리매김했다.<sup>1)</sup> 그러나 전통 서정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면이 박목월의 초기 시에 내재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최승호와 금동철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최승호에 따르면 박목월의 초기 시에 나타난 자연은 유기론적인 생명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적 자연관은 사뭇 다르다. 비록 민요조 리듬이나 산수화 기법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초월적인 어떤 종교적인 힘”이 어려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와 마찬가지로 금동철 또한 박목월의 자연을, 기독교적 세계관(초월성)이 내포된 자연 이미지로 이해한다.<sup>3)</sup>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동양 미학적 성격/기독교적 세계관’은 박목월의 초기 시세계에 대한 연구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립 구도 중 하나다. 그런데 저 대립 구도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동양 미학적 성격과 기독교 정신이 박목월의 초기 시를 통해서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항 대립적인 두 세계가 박목월의 초기 시에서 긴밀히 연속되어 있다는 가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동양 사상과 기독교적 정신의 미학적 접점으로서 박목월의 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지금껏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능성은 타진하는 소수의 논의가 존재한다. 비록 초기 시에 대한 분석은 아니나 오세영은 박목월 시세계의 바탕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

1) 정한모, 「청록파의 시사적 의의」,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74; 권혁웅, 「박목월 초기 시의 구조와 의의」, 『돈암어문학』 12, 돈암어문학회, 1999; 진순애, 「박목월 시의 신화적 시간」,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이상호, 「박목월 초기 시에 내포된 장자적 상상력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3,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이재복, 「시와 정체공능의 미학」, 『비교한국학』 26, 국제비교한국학회, 2018.

2) 최승호, 「박목월론: 근원에의 항수와 반근대의식」(『향토문학연구』 4, 향토문학연구회, 2001),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114-115쪽.

3)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연구」,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박목월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 연구」, 『한국시학연구』 24, 한국시학회, 2009.

잡고 있으며, 그의 문학적 향토성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소박한 토양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sup>4)</sup> 금동철 또한 「사향가(思鄉歌)」 등을 분석하며 경주라는 장소에 기독교적 이미지와 불교적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음을 간략히 언급했다.<sup>5)</sup> 박목월의 시세계에서 종교적 상상력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논하는 유성호는, 초기 시세계에서 시인이 일관되게 고수한 담수채의 동양 화법이 종교적 상상력의 적실한 방법론일 수도 있음을 짚거나마 지적한 바 있다.<sup>6)</sup> 특히 김인섭과 손진은은 ‘기독교 정신의 토착화’라는 보다 명확한 시각을 바탕으로 박목월의 시세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김인섭에 따르면 박목월의 후기 시에서는 전통적 심상이 외래적 주제와 융합되는 독특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정신의 한국적 양식화, 그 가능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신앙시의 새로운 문학적 성과이다.<sup>7)</sup> 손진은 또한 서구의 정신이 전통적인 정신과 결합함으로써 이루는 세계성이 박목월의 후기 시에 내재하며, 어떤 면에서는 토속 정서와 기독교적 정신이 융합한 희귀한 사례라고 주장한다.<sup>8)</sup>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본 논의의 시각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사실, 한국 현대 기독교 시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이른바 ‘굴절’의 측면이다. 서구 기독교의 토착화 과정으로서 기독교 사상과 동양 미학의 시적 만남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최동호의 「한국 현대시와 종교적 상상」은 주목을 요한다. 한국 현대시에

4) 오세영, 「박목월의 <회수> 읽기」(『한국현대시 분석적 읽기』, 1998),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5)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근원의식」,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9, 284쪽.

6) 유성호, 「사랑과 궁극적 근원을 향한 의지」(『작가연구』, 2000),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7) 김인섭, 「정지용·박목월 신앙시의 대비적 고찰」,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8) 손진은, 「박목월 시의 향토성과 세계성」, 『우리말글』 28, 우리말글학회, 2003.

나타난 종교사상의 다양성과 그 한국적 특징을 논하는 이 글에서 강조되는 것은 “한국의 시인들에게 종교사상은 복합적 공존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국 전통의 기저에 놓인 샤머니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종교인 불교와 유교, 서구적인 기독교가 각기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을 뿐 아니라 “상생과 혼융의 공존이 특징적”이라는 것이다. 최동호는 “역사의 전개와 변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종교 사상의 이러한 공존 현상이 “문명충돌의 시대에 문명의 상생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적 전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sup>9)</sup>

한국 신학계에서 기독교 토착화의 논리적 길잡이로 종종 언급되는 신학은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에 입각한 레이몬 파니카의 사상이다. 다른 종교와의 만남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 이해 역시 불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동양 사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평 융합(fusion of horizon)’을 시도하는 그의 우주신인론(Kosmotheandrismus)은 동양 특유의 일원론적 사유를 바탕으로 무(無·空·虛·道)의 내재성과 충만한 신성의 초월성을 결합하여 기독교를 새로이 해석한다.<sup>10)</sup> 이 땅에서 신앙의 토착화를 선구적으로 모색하고 이끈 다석 유영모와 소금 유동식의 신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통해 기독교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유영모의 신학은 동양적 일원론으로서 ‘무’의 개념을 바탕으로 삼는다.<sup>11)</sup> 소금 유동식 또한 유영모

9) 최동호, 「한국 현대시와 종교적 상상」, 『한국시학연구』 11, 한국시학회, 2004.

10) 레이몬 파니카, 김승철 역, 『종교간의 대화』, 서광사, 1992, 119-120쪽, 147-149쪽.

11) “한아님은 없이 계신 이다. 없으면서도 계신다.”라는 언급을 통해 신을 ‘없이 계심’으로 규정하는 유영모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이다. 김정두에 따르면, 서구적인 ‘유/무’의 이원론과는 구별되는 이 ‘없음’은 ‘불이(不二)’라는 동양적인 직관을 내재한다. ‘무’를 악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유’를 더 중시했던 서구(이원론)와 달리 유영모는 ‘무’를 생명과 만물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동아시아 사상(일원론)을 바탕으로 신과 구원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기상 또한 김정두와 마찬가지로, 서구적인 논리(이성·존재자·인간 중심의 사유)에서는 배제되어버린 저 ‘무’의 차원이 곧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자리일 수 있으며, 이를

와 마찬가지로 ‘무’로 대표되는 동양적 일원론을 토대로 신학의 토착화 과정을 연구하고 풍류 신학을 개진한다.<sup>12)</sup>

이처럼 동양 사상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만남은 주로 ‘무’에 대한 일원론적 사유와 감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무’의 개념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융합할 때, 삶은 절대자에게 이르는 실존적 순례이며 동시에 자신을 무한히 낮추어 귀일(歸一)하는 초탈(자기부정)의 과정으로 사유된다는 점이다. 가령 ‘무’가 만물의 바탕 이자 순환적 움직임이며 모든 것의 종착지라는 사실에 착안한 유영모는 기독교적인 삶과 신앙을 “우리는 으뜸으로 돌아간다. 복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돌아간다. 귀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맨 첨 나온 데로 돌아간다. 회초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sup>13)</sup> 유동식 또한 『도덕경』의 “致虛極 守靜篤 萬物並作 吾以觀復”이라는 말을 빌려 “사욕을 떠나서 빙 마음으로” 고요히 세상을 바라보는 무욕의 경지에 서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천지의 창조주에게로 귀일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4)</sup> 귀일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되

---

간파한 대표적인 신학자가 유영모라고 주장한다. 김정두, 「다석 유영모의 신, 무 그리고 구원 이해」, 『신학논단』 87, 연합신학대학원, 2017, 12–14쪽, 27–29쪽; 이기상, 「“태양을 꺼라!” 존재 중심의 사유로부터의 해방」, 김홍호·이정배 편,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동양적 기독교 이해』, 솔, 2002, 43–45쪽.

12) 진리 자체는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이지만 “그 진리의 이해와 그 표현이란 상대적인 것이므로 시대적 또는 지역적 문화환경의 제약 밑에 있”음을 강조한 그는 “복음의 동양적 이해의 지평을 제공할 우리의 개념”으로 제일 먼저 ‘도(道)’를 꼽았다. 이때의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자 능동적인 창조자이며 내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성격을 지닌 ‘무’와 같은 것으로 마치 성경의 ‘로고스(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끈다. ‘무’로서의 ‘도’에 대한 유동식의 천착은 이후 무속 등의 연구를 통해 차츰 한국의 전통적 종교·철학 개념인 ‘한’과 ‘풍류’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예술 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유동식, 「도와 로고스」, 『한국문화와 풍류신학』, 한국문화신학회 편, 한들출판사, 2002, 17–19쪽.

13) 유영모, 박영호 편, 『다석 유영모 어록』, 두레, 2002, 49쪽.

14) 유동식, 앞의 글, 19–20쪽.

는 것이 이른바 자기부정으로서 무아(無我)이다. 이정배에 따르면 유영 모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장 39절)라는 기도를 통해 아(我)를 버림으로써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귀일)처럼 인간의 사적 자아가 사라지는 무아의 상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5)</sup> 유동식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낫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을 복음의 방법론이라 설명하고 이 “자기부정에 의한 승리”만이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의 사귐을 갖는 길”이며 동시에 인간이 삶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라 말했다.<sup>16)</sup>

이와 같은 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본고는 박목월의 초기 시세계에서 동양적 사유가 기독교 정신과 결합하여 창출하는 미적 상상력, 특히 ‘무’에 대한 동양적인 미감이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와 융합하는 지점으로서 귀일의 상상력을 고찰하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15) 이정배, 「다석 유영모의 동양적 기독교 이해와 열 기독론」, 김홍호·이정배 편,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동양적 기독교 이해』, 솔, 2002, 137-138쪽.

16) 특히 유동식은 이 자기부정이 “자기해탈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은 자기부정 그 자체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체념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정적 신앙 결단을 매개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동참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에크하르트의 ‘초탈(Abgeschiedenheit)’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에크하르트는 자기 비움, 자기 무화, 자기부정 또는 자기 포기로서의 ‘초탈’이 선행되어야 신성과 합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종에 따르면, 초탈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적인 사념과 사욕, 성취와 희망까지 모두 떨쳐버리는 것이며 이 절저한 자기 무화를 통해서만 “무의 상태와 같이 맑은 영혼의 근거 위에 절대자 신, 즉 신성의 모습이 비치게 된다.” 즉, 초탈이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가난한 상태’로서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다. 유동식, 「복음의 토착화와 선교적 과제」, 『한국문화와 풍류신학』, 한들, 2002, 23-24쪽; 류기종, 『기독교와 동양 사상』, 황소와 소나무, 2003, 209-213쪽.

## 2. ‘잦아듦’의 자연 이미지와 숙명으로서의 유한성

지금까지 박목월의 ‘자연’은 전통적 심상으로서 반근대적 의미 또는 현실 도피적 성격으로서의 그 한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이에 대해 박현수는 “박목월이나 청록파의 자연의 문제는 결국 시인의 자연관이나 실제적인 자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사용된 자연 이미지의 문제라는 점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박목월 초기 시의 자연 ‘이미지’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sup>17)</sup> 이처럼 논의의 초점을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 이미지에 두면 상당히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유사한 관념을 지닌 이미지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가 자연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반복하여 형상화 되는가?

① 여기는 慶州/新羅千年……/타는 노을//아지랑이 아른대는/머언 길을/  
봄 하로 더딘날/꿈을 따라 가며는//石塔 한채 돌아서/鄉校 門 하나/丹青  
이 낡은대로/닫혀 있었다.

— 「춘일」 전문<sup>18)</sup>

⑤ 흰 옷자락 아슴아슴/사라지는 저녁답/짧은 초가 지붕에/하얗게 일어  
서/가난한 살림살이/자근자근 속삭이며/박꽃 아가씨야/박꽃 아가씨야/  
짧은 저녁답을/말없이 울자

— 「박꽃」 전문

⑥ 머언산 구비구비 돌아갔기로/山 구비마다 구비마다/절로 슬픔은 일  
어……//뵈일듯 말듯한 산길/산울림 멀리 울려 나가다/산울림 훌로 돌아  
나가다/……어쩐지 어쩐지 울음이 돌고/생각처럼 그리움처럼……//길은

17) 박현수, 「초기시의 기묘한 풍경과 이미지의 존재론」,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228쪽.

18) 박목월, 「춘일」, 이남호 편, 『박목월 시전집』, 민음사, 2003, 39쪽. 이후 박목월의 시 인용은 이 전집에 따르며 구체적인 출처 표기는 생략한다.

실낱같다.

—「길처럼」 부분

⑤ 머언 산 靑雲寺/낡은 기와집//산은 紫霞山/봄눈 녹으면//느름나무/속  
스잎 피어가는 열두 구비를//靑노루/맑은 눈에//도는/구름

—「청노루」 전문

▣ 이 체념과 자연몰입의 세계 (...중략...) 일제 말기의 암흑한 시대에 생명을 다스려 나갈 막다른 길에서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의 세계를 이루한 것이다. (...중략...) 나는 그 무렵에 나대로의 지도를 가졌다. 그 어둡고 불안한 시대에 푸근히 은신할 수 있는 <어수룩한 천지>가 그리웠다. (...중략...) <마음의 지도>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태모산·태옹산 그 줄기 아래 구강산·자하산이 있고 (...중략...) 자하산의 보랏빛 아지랑이 속에 아른거리는 낡은 기와집이 청운사다.<sup>19)</sup>

위의 인용 시에서 시적 소재로 사용된 자연 풍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해 질 무렵 아른대는 아지랑이, 아슴아슴 사라지는 저녁, 가면 갈수록 실낱같은 산길과 먼 산, 녹아내리는 봄눈. 이 자연 풍경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사라져가는’ 동적 이미지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박목월의 초기 시 곳곳에서 발견된다. 「삼월」과 「산도화」의 넛풀, 「나그네」의 나그네, 「가을 어스름」의 저물녘과 「한석산」의 구름 등, 특유의 운율로 흐르거나 정처 없이 떠돌고 흘로 가는 이미지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이 ‘흐름’의 이미지가 지닌 특정 중 하나는, 그것이 시적 자아의 애달픈 흐느낌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슬픔의 정서와 연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승원은 박목월의 자연이 객관적인 자연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재구성된 자연이며 특히 “그의 초기시에는 가늘게 사라지는 길의 영상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의 심정 양태를

19) 박목월, 「청록집의 자작시 해설」,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261쪽.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20)</sup>

이러한 측면에서 박목월 초기 시의 주된 시적 소재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른바 유(有)가 무(無)로 차차 소멸해가는 ‘잦아듦’의 이미지와 그것을 응시하는 시적 자아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⑦에서 시적 자아는 아지랑이 아른대는 먼 길을 걸어간 끝에 ‘新羅千年’의 폐허에 이른다. 다 바스러진 석탑과 낡은 채로 닫혀 있는 향교는 ‘춘일(春日)’이라는 시 제목과 대비되면서, 소멸 직전에 놓인 세계의 비극성과 그에 대한 자아의 감정을 도드라지게 드러낸다. 이는 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적 자아는 썩은 초가지붕에 하얗게 달린 박꽃을 바라보며 ‘아슴아슴/사라지는 저녁답’같은 낙화를 상상하고는 ‘짧은 저녁답을/말없이’ 우는 슬픔에 빠진다.

사실 자연 풍경을 매개로 박목월이 응시하는 이미지, 유가 무로 잣아들다가 끝내 소멸하고야 마는 과정은 유한한 존재자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숙명과도 같다.<sup>21)</sup> 박목월에게 자연은, 구체적인 물질성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유한성을 암시하는 일종의 상징적 실재에 가깝다. 그의 시적 자아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응시하기보다 자연에 내재한 저 소멸에의 징후를 바라보며 흐느끼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⑨이다. 이 시의 주된 소재인 ‘길’은 그 어떤 구체성도 지니고 있지 않다. 사실에서 추상으로 나아가듯 길의 물질성은 자아의 애달픈 심정 혹은 산 굽이굽이 차차 실낱같아진다는 ‘잦아듦’의 속성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희박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⑨을 살펴보자. 이 시의 주된 이미지는 자하산의 봄

20) 이승원, 「환상의 지도에서 존재의 탐색까지」, 박현수 편, 『박목월』, 93–94쪽.

21) 어떤 면에서 이것은 죽음, 공허, 무의미, 죄의식, 삶의 비극성 등 비존재의 위협에 시달리는 인간의 유한성과 그로 인한 불안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이데거는 ‘소멸시키는 무’, 즉 죽음에 의해 무가 되는 것을 인간 실존의 특징으로 보았는데, 폴 텔리히는 그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을 존재와 비존재의 결합체로 규정하고 이를 ‘유한성’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한다. 폴 텔리히, 차성구 역, 『존재의 용기』, 예영, 2004, 70–89쪽.

눈에서 발원한 냇물이, “느름나무/속へ잎 피어가는 열두 구비”를 돌고 돌아 지상까지 하강하는 이미지이다. 그런데 ④의 자작시 해설인 ⑤에 따르면, 냇물의 발원지 ‘紫霞山, 靑雲寺’는 실제의 지명이 아니라 “어둡고 불안한 시대에 푸근히 은신할 수 있는 <어수룩한 천지>”로서 박목월이 상상한 근원적 세계의 명칭이다. 즉, ④의 하강적 운동 이미지에는 ‘천락’의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다. 박목월 초기 시의 자연 이미지로서 ‘잦아듦’은 근원적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 끝내 소멸하고야 마는 실존적 유한성이자 그러한 유한성과 직면한 존재자(有)의 애달픔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 말기의 암흑한 시대에 생명을 다스려 나갈 막다른 길에서” 시인이 이룩했다는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의 세계”는 무엇인가? 박목월은 어린 시절 타향살이하면서 경험한 그리움이 시 창작의 동기였다고 밝히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혜세의 작품을 읽고 “그 구름의 정령의 세계를 발견한 후로 한결 향수라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깊은 곳에서” 우러나며 “아름다움이나, 진리나, 진리를 갈구하는 정신이 모조리 나직하고 조용히 수그려진 향수의 애달픈 모습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때, 시인이 인용하는 혜세의 시구절이 바로 『백운(白雲)의 노래』의 일부분인 “보라. 잊혀진 옛날의 아름다운 멜로디의 한 가락인양 솟아나서 하늘 끝으로 떠 흐르는 저 흰 구름을”이다.<sup>22)</sup> 여기서 ‘흰 구름’은 하늘과 지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끝으로 떠 흐르는’ 존재자이다. 근원에서 멀어지다 못해 이윽고 소멸에 직면한 설움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상향을 향한 향수, 이 두 감정을 끌어안은 채 ‘하늘/지상’의 거리감을 해매는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만 보면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의 세계”로서 박목월 초기 시의 밑바탕에는,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자아의 동경심과 그러한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현실,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낭만적 아이러니가 가

---

22) 박목월, 『머더 구우즈의 마법 지팡이』,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25-26쪽.

로놓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박목월의 시세계를 낭만적 아이러니로만 환원해버릴 경우, “그의 시의 풍경은 자연과 인간의 진정한 혼융의 소산이 아니라, 주관적인 욕구에 의하여 꾸며낸 자기만족의 풍경”이라는 김우창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sup>23)</sup> 이 김우창의 지적은 낭만적 자아와 아이러니에 대한 헤겔의 비판과 거의 일치한다. 헤겔은 낭만적 자아가, 유토피아를 실현 불가능한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실과 분리된 피안으로 밀쳐놓고 이를 동경의 대상으로만 삼는 공허하고 순수한 주관성의 극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꿈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공허해질 수밖에 없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공허해질수록 꿈을 더욱 갈망하는 악순환 속에서 자아는 불안과 상실에 시달리는 병든 영혼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24)</sup> 이러한 논의에 기대면 박목월의 초기 시 세계는 병적 불안을 감춘 자폐적 상상력에 불과하다. 과연 그러한가? 본고는 저 병적 영혼의 노래에서 비켜서게 하는 두 가지 힘이 박목월의 초기 시 세계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동양 미학적 사유와 기독교적 삶의 태도이다.

### 3. 무(無)의 근원성과 관련한 동양적 사유와 귀일

박목월의 초기 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노루」의 청노루가 고개 들어 바라보는 구름, 이에 대한 시인의 사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잦아듦’의 자연 이미지, 근원적 세계에서 멀어지며 차차 소멸해가는 모습을 응시하면서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구름의 세계란 무엇인가?

㉠ 이 작품에서 노래한 것은 구름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온갖 고뇌를 벗

23) 김우창, 「한국시의 형이상」,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55쪽.

24) 헤겔, 두행숙 역, 『헤겔의 미학강의 1』, 은행나무, 2010, 138-145쪽.

어버린 사람의 가슴에 깃드는 그 허전하게 평안한 단란과 무상의 표상 물이다. 이처럼 서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건너갈 수 있는 그것이 야말로, 끝없는 하늘에 천천히 흐르는 <구름의 마음>이다. (…중략…)  
이 속절없는 구름의 속삭임을 허무한 것으로만 듣는다면 지나친 생각이다. (…중략…)  
버릴 것은 버리고, 단념할 것은 아낌없이 씻어 버린 그 허전하게 가벼운 마음이 곧 구름의 마음이다.<sup>25)</sup>

㉡ 그 당시에 나는 경주라는 <좁고도 너른 지역>에서, 자연에 몰입하고, 자연의 섭리와 변화를 응시하며, 젊은 날의 슬픔과 고독, 그리고 사모를 노래하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혼탁한 감정의 승화를 지향하였다. —핏줄이 속삭이는 것을 노래하자. 그 당시의 일기 한 토막이라. 하지만, 그 무렵 내가 염원한 핏줄은 인간의 뜨거운 열기를 떠는 것이기보다 자연 속에 정화된 물 같은 것일 수 있었다.<sup>26)</sup>

㉢ 그와 같은 나의 염원은 애정 감정의 혼탁한 세계에서의 나 자신의 승화를 희구하는 그야말로 염원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이 작품도 그와 같은 염원의 정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보라빛 石山의 가지가 앙상하게 빛나는 山桃花>. 이 단조롭고 담담한 풍경 속에 홍백의 꽃 송이를 두어 점 따위, 동양화적인 정취를 살리려 한 것이다. (…중략…)  
이 작품의 동양화적 담백성과 표현에 있어서 <여백의 함축미>는 나의 작품 세계의 밑바닥에 깔리는, 나 자신의 본질적인 일면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박목월은 「시 몇 수」라는 산문에서 해세의 시, 「흰 구름」을 소개하며 구름에 대하여 ⑦과 같은 사유를 펼친다. 이 글에서 구름은 분명 유가무로 잣아들다가 끝내 소멸하고야 마는, 그 비극적인 숙명을 떠안은 존재자의 표상이다. 더욱이 지상과 하늘,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현실/이상’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는 게 구름의 삶이니, “구름의 마음”은 공허와

25) 박목월, 「시 몇 수」,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313-314쪽.

26) 박목월, 「내성적 사모」,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76쪽.

27) 박목월, 「산도화의 여운」,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130-131쪽.

불안, 설움으로 병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시인은 “이 속절없는 구름의 속삭임을 허무한 것으로만 듣는다면 지나친 생각”이며 도리어 서럽지만 편안하고 허전하지만 가벼우며 충만한 것이, “세상의 온갖 고뇌”를 건너가는 구름의 심정이라 한다.

속절없이 허무하고 애달픈 마음마저 담담하게 하는 저 평온함은 어디서 오는가? 초기 시 『가을 어스름』에 대한 자작시 해설인 ⑦을 살펴보자. 이 글에 따르면 시인은 『청록집』에 실린 시들을 창작하던 당시, 자연을 응시하고 “핏줄이 속삭이는 것을 노래”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흔탁한 감정의 승화”를 지향하였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흔탁한 감정’은 짐작하건대 “젊은 날의 슬픔과 고독”일 것이며, 바로 이러한 감정을 가라앉힘으로써 “자연 속에 정화된 물” 같은 시를 쓰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인이, 정신적 거름망으로 “자연의 섭리”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산도화 1』을 해설하는 ⑧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⑧에서 박목월은 “감정의 흔탁한 세계에서의 나 자신의 승화를 희구”하는 그 염원의 미적 방법으로 “동양화적인 정취를 살리려 한 것”을 꼽는다. “동양화적인 담백성과 표현에 있어서 <여백의 합축미>”를 통하여 슬픔을 담담하게 승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대 ⑦의 “버릴 것은 버리고, 단념할 것은 아낌없이 씻어 버린 그 허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서 ‘구름의 세계’는 분명 ⑧의 “동양화적인 담백성”과 “여백의 합축미”로서 자연의 아름다움, 더 정확히는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표출되는 동양적 사유(자연의 섭리)와 깊이 관련 있다.

⑦ 산빛은/제대로 풀리고//꾀꼬리 목청은/틔어 오는데//달빛에 木船가듯  
/조는 菩薩//꽃그늘 환한 물/조는 菩薩 (…중략…) <달빛에 목선 가듯  
조는 보살>이라는 구절은 스물한 살 무렵에 얻은 것이다. (…중략…) 스  
물한 살 되던 그해 봄이다. 나는 벗들과 석굴암에 산놀이를 가서 대불의  
그 끝없이 편안한 앉임새와 열릴 듯 다문 입술 혹은 부드러운 어깨 언

저리의 우아하고 인자로운 선을 우러러 바라보는 동안에 이상하게 크낙 한 평안함과 마음의 가라앉음을 느꼈다.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수유(須臾)에 어리는 무한감> 같은 것이라 여겼다. 그런 감정으로 나를 살펴볼 때 혹은 인생을 상념할 때 명멸하는 생명이라는 것의 하염없음, 또한 <소란한 시대>라는 것이 억겁의 긴 세월 속에는 조용히 갈앉아 잠잠해버리는 것이다. 그 <달빛에 목선 가듯>한 경지. (...중략...) 이런 무한감과 그 무한감 속에 내 애절한 삶을 풀어버리는 것으로 나는 서럽게 넉넉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sup>28)</sup>

④ 그 5월에 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달이 환한 이슥한 밤이었다. 하숙집 뜰에서 명하니 달을 쳐다보는 동안에 이상한 충만감이 가슴에 고여 왔다. 그것은 무한의 기슭까지 뻗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빈틈 없이 달빛이 실리게 되는, 그 허전하고 쓸쓸한 대로 충만한 세계가 가슴 속에 가득하게 밀려오는 것 같았다. 온 우주가 완전히 비어 있음을 실감하고, 또한 그 빈 우주에 가득하게 풀리는 나 자신의 고독과 그 충만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sup>29)</sup>

⑤ 모란꽃 이후는 하얀 해으름//강을 건너는 청모시 웃고름//仙桃山/水晶그늘/어려 보랏빛//모란꽃 해으름 청모시 웃고름 (...중략...) 뜰 앞에 모란꽃이 이울기 시작하는 오월 해으름—그 길고, 너그럽고, 서려운 일모(日暮)를 나는 좋아했다. (...중략...) 이렇게 눈물겨운 천지에 또한 모란꽃은 왜 뜰 앞에 지는 것일까? 나는 이 작품에서 <仙桃山/水晶그늘/어려 보랏빛>이라는 구절을 사랑한다. 오월 해으름이 되면 선도산에 산그늘이 어린다. 그 그늘이야말로 투명하면서 어둡고, 푸르면서도 붉은..... 그늘로 말미암아 산이 맑아지는 그 현묘한 뉘앙스의 세계 (...중략...) 나는 이 한 구로써 <그늘을 머금은 산>의 볼륨(질량감)을 파악하여 그것으로써 <산>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묘사라는 것이 아니다. 묘사는 외형적인 형태에 한결 충실한 것이나, 나는 질감이 나타나는 그것의 형상을 그리려 했다.<sup>30)</sup>

28) 박목월, 「산도화의 여운」,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140-142쪽.

29) 박목월, 「문학적 자서전」, 정민 편, 『달과 고무신』, 태학사, 2015, 80쪽.

30) 박목월, 「산도화의 여운」,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143

시 「山色」과 그것을 해설하는 ⑩에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달빛에 木船가듯/조는 菩薩”이다. 달빛에 목선이 지나가는 이 이미지는 ⑦의 “서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건너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끝없는 하늘에 천천히 흐르는 <구름의 마음>”과 상통하면 면이 있다. 박목월에 따르면, “달빛에 木船가듯/조는 菩薩”은 막 스물을 넘겼을 무렵 석굴암 대불(大佛)의 “그 끝없이 편안한 앉임새와 열릴 듯 다문 입술 혹은 부드러운 어깨 언저리의 우아하고 인자로운 선”으로부터 얻은 시 구절이다. 한국적이며 동양적인 이 ‘선’을 바라보는 동안에 시인이 경험한 “크나한 평안함과 마음의 가라앉음”은 이른바 기욕(嗜慾)이 시들어서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물처럼 담담해지는 동양의 미학적 경지, ‘담(談)’을 연상케 한다.

프랑수아 줄리앙에 따르면 이 무미(無味)한 예술적 모티브, ‘담’은 유불선의 모든 사상적 지원을 받으며 창출된 동양 예술의 공통된 이상이며, 동양 미학은 이를 통하여 ‘무(허·고요·단순·여백 등)’가 세계의 근본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담의 아름다움은, 소멸이 그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차별화된 근본으로의 회귀”, 즉 귀일(歸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물들이 차별화되지 않는 것 속으로 돌아”가는 이 모종의 아득함을 통하여 동양 예술은 우리를 공허한 삶의 양식으로부터 해방하며 고독과 허무에 빠지지 않는 마음(초연함)을 불러일으키고 초월적인 조화로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논의의 골자이다.<sup>31)</sup> 김바라 세이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무에서 생겨난 유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관계로서 “유와 무의 거래성”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동양 미학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특히 김바라 세이고는 “존재가 깊은 것은 그 거래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며 존재의 깊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곧

---

-145쪽.

31) 프랑수아 줄리앙, 최애리 역, 『무미예찬』, 산책자, 2010, 45쪽, 78쪽, 95쪽, 147쪽.

‘유’의 형상과 그 배후에 깊이 간직된 무한(無限)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sup>32)</sup> 이 설명에 기대어보면, 박목월이 보았다는 ⑬의 “수유(須臾)에 어리는 무한감”은 사물의 바탕으로 존재하는 무, 더 정확히는 유무의 깊은 관계로서 거래성을 뜻한다. 즉, 시인은 ‘유’에서 ‘무’로 잣아드는 자연 이미지가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비극성의 메타포가 아니라 어쩌면 만물의 어머니인 ‘무한’으로 “조용히 갈앉아 잠잠해버리는” 귀일(歸一)의 과정일 수 있음을 어렵잖이 인식한 것이다.

⑭은 “달빛에 木船가듯/조는 菩薩”이라는 시구를 떠올렸던 때와 관련된 또 다른 산문이다. 이에 따르면 박목월은 약 스무 살 무렵, 경주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하숙집에서 명하니 바라보던 달이, 문득 환하게 빛나며 “무한의 기슭까지 뻗”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인은 자신(유)마저 우주로 충만하게 풀려난다고 느낀다. 이 글에서 ‘자아/우주, 유한/무한’의 관계는 ‘번짐’으로 묘사된다. “온 우주가 완전히 비어 있음을 실감”했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우주는 한 획의 목선처럼 그려진 자아의 여백, ‘무’이다. 저 무한한 여백 속으로 유한한 자아가 “빈 우주에 가득하게 풀리”듯이 번진다. 자아(유)와 우주(무)의 경계가 자연스레 허물어져 한데 뒤섞이는 이 장면은, 시인이 유무의 거래성을 찰나 나마 포착했음을 보여준다. ‘텅 빈’ 무가 유의 바탕이며, 유의 잣아듦이 곧 귀일일 수 있음을 실감한 것이다. 하필 “달이 환한 이슥한 밤”에 이를 체험한 것은 달이야말로 무에서 태어나 다시 무로 돌아가는 순환, “자연의 섭리”의 상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 시 「모란여정(牡丹餘情)」과 그에 대한 자작시 해설 ⑪을 보자. 시인은 “뜰 앞에 모란꽃이 이울기 시작하는 오월 해으름”을 응시한다. 쇠약하여 차차 시들고 스러지는 자연 풍경을 시인이 하염없이 바라보는 이유는 “모란꽃은 왜 뜰앞에 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더 정확히는 저 잣아듦의 이미지를 매개로 세계의 ‘깊이’를 포착하

32) 김바라 세이고, 민병산 역, 『동양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78, 32-39쪽.

기 위해서이다. “묘사는 외형적인 형태에 한결 충실했던 것이나, 나는 질감이 나타나는 그것의 형상을 그리려 했다.”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듯 박목월은 ‘잦아듦’의 자연 이미지를 직시하며 “볼륨(질량감)”으로서의 존재의 깊이를 확인하고 형상화하고자 노력했다. “仙桃山/水晶그늘/어려보랏빛”이라는 시구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해 질 무렵, 산의 외적 형상이 어둠에 완전히 파묻히기 직전에 솟구쳐오르는 저 ‘보랏빛’은, “투명하면서 어둡고, 푸르면서도 붉은” ‘水晶그늘’로서 ‘밝음/어둠, 푸름/붉음, 유/무’가 서로 겹쳐 본래부터 하나인 절대적 무한의 실재를 암시한다. 그리하여 어두워 간다는 것은 저 ‘水晶그늘’이 포근히 어리는, 그늘(무한)로 말미암아 산(유)이 더욱 충만해지는 과정이라는 “현묘한 뉘앙스”를 전한다. ‘유/무’의 근원적인 연속성 속에서는 “명멸하는 생명이라는 것의 하염없음”(문)이 무의미한 소멸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의 품으로 안겨드는 귀일의 과정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박목월은 「밤」이라는 산문에서 “죽음은 그야말로 소멸이나 종언이 아니다. 내 육신이 스스로 영원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환하게 눈을 뜨는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sup>33)</sup> 여기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인 “영원”으로 되돌아가 환하게 되살아나는 환희의 순간처럼 그려진다. 시인이 ‘잦아듦’의 자연의 이미지를 응시하면서도 병적인 슬픔에만 함몰되지 않고 문의 “서럽게 넉넉한 것”을 노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⑦에서 박목월이 사유한 구름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자. 그것은 허전하게 평안하고 서럽게 편안하며 속절없이 허무하면서도 가벼운 심정이다. 평안·편안·가벼움의 정서에는 허전·허무·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실제로 박목월은 『청록집』에 실린 시에 대한 또 다른 자작시 해설인 「구강산의 청록」에서 “아무리 우리의 운명이나 소원을 자연의 섭리에 맡겨버려도 그것으로 안주할 수 없는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33) 박목월, 「밤」, 정민 편, 『달과 고무신』, 태학사, 2015, 176쪽.

고백한 바 있다.<sup>34)</sup> 이는 “버릴 것은 버리고, 단념할 것은 아낌없이 썻어 버린 그 허전하게 가벼운”(㉠) 구름의 마음이 동양적인 달관(귀일)으로 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 <나그네>의 주제적인 것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였다. (...중략...) 나그네의 깊은 고독과 애수, 혹은 나그네의 애달픈 향수, (...중략...) 다만, 생에 대한 가냘픈 꿈과 그 꿈조차 오히려 체념한, 바람같이 떠도는, 절망과 체념의 모습으로서 나그네가 내게는 너무나 애달픈 꿈(영상)이었다. 더구나, 우리는 세상을 다 버리고 떠도는 자를 나그네라 부르는, 그 버리는 정신, 그것은 모든 소망을 잃은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버리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충만하게 하는 그 허전한 심정과 그 심정이 꿈꾸는 애달픈 하늘, 그 달관의 세계-이런 뜻의 총화적인 영상으로서 나그네를 꿈꾸었을지 모른다.<sup>35)</sup>

박목월 초기 시의 대표작 「나그네」에서 ‘나그네’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구름에 달 가듯이” 떠돈다. 이 시구는 버릴 건 버리고 유유히 흐르는 ㉠의 “구름의 마음”이나 ㉡의 “달빛에 木船가듯” 하는 이미지와 상통하는 구절로 삶을 달관하여 유유자적하는 태도(현실 초월)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인은 ㉡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시 구절에 담긴 나그네의 존재론적 삶의 양식을 “<버리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충만하게 하는 그 허전한 심정과 그 심정이 꿈꾸는 애달픈 하늘, 그 달관의 세계-이런 뜻의 총화적인 영상”이라고 규정한다. 달리 말하면 박목월 초기 시의 바탕이 되는 저 구름의 마음에는 ‘달관’과 더불어 “생에 대한 가냘픈 꿈과 그 꿈조차 오히려 체념”하는, 이른바 소망마저 “버리는 정신”이 총화적으로 결합해 있다. 그렇다면, 삶을 달관하는 동양적 태도와 융합한 저 ‘버림’의 자세는 무엇인가?

34) 박목월, 「구강산의 청록」,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93쪽.

35) 박목월, 「청록집의 자작시 해설」,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262-263쪽.

#### 4. 삶의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의미 부여와 초탈 - 결론을 대신하여

초기의 박목월이 집요하게 응시하는 잣아듦의 자연 이미지는, 상반되는 두 의미를 모순적으로 함축한다. 여기에는 뭇 존재가 근원에서 멀어져 무의미하게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비극적 숙명론과 그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이 곧 근원으로 나아가는 충만한 길이라는 자각이 비대칭적으로 공존한다. 비록 경주 특유의 향토성과 동양 미학적인 사유를 통하여 후자를 체득했다 하더라도, 저 모순을, 정신적 혼란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시가 「윤사월」이다.

⑦ 松花가루 날리는/외딴 봉우리//윤사월 해 걸다/찌꼬리 울면//산적이  
외딴집/눈 먼 처녀사//문설주에 귀 대이고/엿듣고 있다 (‥중략‥) 젊은  
날에 맞이한 애절한 <또 하나의 사월>은, 햇볕이 두터워지고 꽃에서 잎  
으로 바뀌는 그 사월과는 거리가 먼 계절적인 착오감을 느끼게 되는 무  
슨 회상적인 세계에서 솟아나는 설움 같은 것이 어리는 달이다. (‥중  
략‥)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를 대이고 무엇을 엿듣고 있는 (‥중  
략‥) <윤사월>의 이상한 호느낌을 하나의 영상으로서 잡으려 했을 것  
이다. (‥중략‥) 다시 말하면 느긋하고 아름답고 애절한 자연과 맞서서,  
그 자연에 융합할 수 있는 길(환경)을-가령 임을 갖는다던가, 무슨 공허  
감이 채워지는 일이 있다던가, 혹은 애절한 대로 너그러운 자연의 가락  
에 스스로의 생명이 몰입된다던가-발음하지 못하고, 자연과 대립한 자  
리의 고독감. 그 나 자신의 생명적 고독한 입지에서 다시 자연에 대한  
공경을 갖는 것, 그런 착종된 심정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서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기대이고 엿듣는> 것을 표현했으리라.<sup>36)</sup>

⑦의 「윤사월」에서 가장 중요한 시 구절은 “눈 먼 처녀사//문설주에

---

36) 박목월, 「청록집의 자작시 해설」,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257-258쪽.

귀 대이고/엿듣고 있다”이다. 이에 대한 박목월의 해설에 따르면 눈먼 처녀가 엿듣는 것은 “<윤사월>의 이상한 흐느낌”이다.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인 사월에 듣는 이 이상한 흐느낌이 무엇인지는 윤사월이 “사월과는 거리가 먼 계절적인 착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언급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이 시에서 눈먼 처녀가 엿듣고 있는 것은 봄인데도 초겨울처럼, 만물이 잣아드는 자연의 소리이다.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그로부터 오는 설움에 맞서서 “애절한 대로 너그러운 자연의 가락”, 이를테면 만물이 순환한다는 귀일(歸一)의 관념을 떠올려도 “자연과 대립한 자리의 고독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박목월의 고백이다. 잣아듦의 자연 이미지에서 촉발되는 설움(겨울)과 충만(봄), 이 두 모순적인 감정이 화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립하는 상태로 이유 모를 절망감을 야기한다. 「윤사월」의 주된 내용을 “그런 착종된 심정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라 해설하는 건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어떤 면에서 박목월이 경험하는, 저 착종된 심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잣아듦’이 세계의 근원으로 귀일하는 충만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소멸해야만 하는 자아의 설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유에서 무로 잣아드는 과정으로서 삶이 지닌 이 모순적 이중성은, 사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귀일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고난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오는 절망감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박목월은 소멸, 그러니까 숙명처럼 삶에 내재한 고난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이 의미 부여함으로써 저 모순을 이겨내고자 한다. ‘초탈’<sup>37)</sup>과 관련된 신학적 사유가 동양 미학적인 감수

37) ‘초연, 무심(無心), 마음의 가난, 체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초탈(Abgeschiedenheit · Disinterest)은 자아가 자기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 맡긴 채 그 무엇도 갈구하거나 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덧없는 일들이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인 영원에 사로잡히게 되는” 정신적 경지, “텅 빈 없음(empty nothingness)”이다. 그의 설교에 따르면, 초탈은 “하나님을 나에게로 오시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과 신이 분리되기 이전, 절대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형상(idea)에 근접

성과 융합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 산이 날 에워싸고/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아들 낳고 딸을 낳고/흙담 안파에 호박 심고/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산이 날 에워싸고/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전문

㉢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하고, 생명의 무상을 느낀 것이야말로, 모든 것에 삶의 보람을 잃은 자가 그 절망에서 다시 삶의 눈을 뜰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이런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비로소 깨닫는 조그마한 긍정의 바탕, 또한 그 바탕을 토대로 해서 <밭이나 갈며 살고> <씨나 뿌리며 사는> 가난한 한 줄기 삶의 길, 이것이 「산이 날 에워싸고」다. 「산이 날 에워싸고」의 <산>은 자연을 뜻하는 것이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실하고 겨우 꽃이나, 수목이나 한 덩이 흙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 (…중략…) 모든 것을 잃으므로 그 상실한 것을 고누려는 눈물겨운 마지막 혼신의 노력, 그 애절한 꿈이 엮는 구슬픈 사연-혹은 넋두리의 한가락이다.<sup>38)</sup>

㉡에서 반복되는 것은 자연과 동화하여 ‘살아라.’라는 명령이다. 자연은, 시적 자아에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식을 기르면서 들찔레와 쑥대밭으로 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박하고 유유자적한 전원 취미가 은연중에 형상화된 것처럼 보인다. 혹은 현실적 억압에 굴종하는 시인의 정신적 특성이 드러났다고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 마지막에

---

할 수 있다. 신은 초탈의 경지에 이른 마음에 자신을 내어주며 그런 마음을 자신의 거처로 선호한다. “이것은 은총의 성취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도록 유인하는 것이며, 덧없는 일들로부터 그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무심에 대하여(About Disinterest)』, 레이몬드 B. 블레크니 편,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 다산글방, 1994, 150-160쪽.

38) 박목월, 『청록집의 자작시 해설』,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269-270쪽.

서 이 명령은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로 귀결한다. 그믐달은 차차 잣아들다 못해 무(無)로 사위어지는 삶의 표상이니, 그믐달처럼 살라는 자연의 음성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명령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목월은 자연이 건네는 이 메시지를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실하고 겨우 꽃이나, 수목이나 한 둉이 흙으로 자기를 인식”하라는, 그러니까 매 순간 고난과 마주하여 세속적인 욕망도, 갈구도, 꿈도 다 버리고 오직 신에게 자신을 내맡긴 채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자연과 통화하여 귀일하기 위해서는, 그믐달처럼 희망과 꿈뿐만 아니라 주체성마저 포기하는, 극한의 체념적 자세가 요청된다고 이해한 것이다.<sup>39)</sup> 이를 시인은 “가난한 한 줄기 삶의 길”이라 명명했다. 이때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이른바 기독교적 의미의 ‘마음의 가난’을 뜻한다.<sup>40)</sup> 존재의 비극적인 숙명(잦아듦)이 주는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낮춤으로써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독교적 사유가 “그믐달처럼 살아라”라는 자연의 음성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박목월의 초기 시를 관통하는 체념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비로소 깨닫는 조그마한 궁정의 바탕”일 수 있는 까닭은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을 오직 절대자

39) ⑤의 또 다른 해설인 「자연의 음성」에서 박목월은 “자연 속에 완전 융화”되는 삶이란 “우리가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리는 것이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어지는 것이며, 가꾸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짐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자연에 내맡기고 자연의 뜻에 따르는 초탈의 자세를 통해서만 세계의 근원인 자연과 융합할 수 있으며, “삶의 본질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박목월, 「자연의 음성」, 『박목월 수필 문학선』, 문학사상사, 2006, 219쪽.

40) 마음의 가난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는 박목월의 산문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박목월은 에이츠의 「하늘의 옷감」을 소개하며 “이 작품을 애송한 까닭은 <가난한 내>라는 구절에 매혹하였기 때문이다.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이나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겸허와도 통하는 것으로 (…중략…) 나는 에이츠의 그야말로 <가난한 사랑>에서 사랑이 종교적인 상태에까지 승화된 정등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박목월, 「갈증과 사투리」,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160-161쪽.

의 뜻에 내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은총이 ‘절로’ 찾아오시리라 믿기 때문이다.<sup>41)</sup>

⑤ 내사 애달픈 꿈꾸는 사람/내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밤마다 홀로/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도//기인 한밤을/눈물로 가는 바위가 있기도 //어느날에사/어둡고 아득한 바위에/절로 임과 하늘이 비치리오

—『임』 전문

④ <절로 임과 하늘이 비치리오>의 <절로>라 함은 임과 하늘을 어둑한 바위에 비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 이상의 능력-<하느님의 섭리나, 천지를 운행하는 힘>이 이룩하여 주시리라는 것. 그 자연의 힘에 대한 믿음을 뜻한 것이다. (…중략…) 진정, 나는 그 당시 <절로>라는 말을 무척 좋아했다.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 <절로>라는 한 개의 어휘 안에 내가 의지해 산 것이라. 왜냐하면 <절로>가 지닌 체념의 경지와 자연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 어둡고 답답한 시대 속에서 나를 고누어 주고, 이끌어 간 것이라.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그 시대를 건너온 <우리>들이 자기를 고누고 의지해 간 것은 이 체념과 소망의 <절로> 안에서가 아닐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sup>42)</sup>

⑤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밤마다 홀로/눈물로 가는 바위”이다. 여기서 ‘밤마다’는 낮이 없는, “기인 한밤”으로서 영원한 어둠을 뜻한다.

41) 그러므로 박목월에게 체념은 현실 도피적 태도도, 동양적 이상을 추구하며 유유 자적하는 삶도 아니다. 도리어 체념은 일종의 자기 구원으로 작용하는 능동적 초월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삶을 절대자에게 맡긴 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여러 고통과 직면하겠다는 용기이다. “그믐달처럼 사워어지는 목숨”을 초월의 과정으로 여기고 묵묵히 감내하겠다는 기독교 특유의 존재론적인 자세를 내비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목월에게 ‘잦아듦’은 인간 존재의 비극성이자 하나님에게로 뻗은 고통스러운 길이다. 그 길의 떠돌은 고통으로부터 초월하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을 안으로 새기며 가는 과정이다. ⑤의 핵심적인 의미로 박목월이 “모든 것을 잃으므로 그 상실한 것을 고누려는 눈물겨운 마지막 혼신의 노력”으로 끊은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박목월, 『청록집의 자작시 해설』,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254-255쪽.

문제는 ‘바위’의 의미이다. 이 시에서 바위는 어느 날엔가 기적처럼 임(하늘)이 도래할 자리지만 동시에 “어느날에사” 그분이 오시겠는가, 하는 의심과 회의, 그 정체 모를 불안이 어리는 자연물이다. 시적 자아에게 ‘바위’는 임이 보이지 않음에도 ‘계심’을 알리는 표지이자 마주 닿을 수 없는, 그와의 “아득한” 거리이기도 하다. 시적 자아를 ‘믿음/회의, 희망/절망’이라는 모순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시의 ‘바위’는 ‘소멸/귀의’의 이항 대립적 의미를 모두 끌어안은 ‘잦아듦’의 자연 이미지와 상당히 닮아있다. 물론 이 시의 ‘바위’가 ‘잦아듦’의 표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 바위를 갈아내는 내내 시적 자아가, ‘잦아듦’을 응시했을 때와 유사한 심적 고통에 휩싸이는 것은 분명하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영원한 밤에 갇혀, 언제 올지 모를 임을 기다리며 눈물로 바위를 간다. 여기서 눈물은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자아의 동경심과 그러한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현실, 이 둘의 갈등에서 오는 낭만적 아이러니를 연상하게 한다. ‘꿈/현실’로 대변되는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시적 자아는 자칫 공허하기 짹이 없는 병적 영혼으로 퇴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때, 등장하는 시어가 바로 “절로”이다. ⑨의 자작 시 해설 ⑩에 따르면, 이 시어는 “임과 하늘을 어둑한 바위에 비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 이상의 능력-〈하느님의 섭리나, 천지를 운행하는 힘〉이 이룩하여 주시리라는 것. 그 자연의 힘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절로’는 박목월의 초기 시세계에 내재한 기독교적 초월성을 암시하는 시어로 해석되어왔다. 그런데 정작 시인은, 이 ‘절로’의 의미를 그저 기독교적인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⑪에서 그는 “〈절로〉가 지닌 체념의 경지와 자연에 대한 소망”에 의지해 어두웠던 시절을 견디어 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절로’는 ‘체념의 경지’와 ‘자연을 향한 소망’, 이 두 개의 정신이 하나로 합쳐진 그 무엇으로 나타난다. 지금 까지 이루어진 본고의 논의에 기대어보면 전자는 기독교적 정신으로서 초탈을, 후자는 동양 미학적인 자유로서 귀일을 뜻한다. 즉 ‘절로’라는

시어는, 차차 잣아들어 소멸해야만 하는 그 숙명이 사실은 귀일하는 충만한 과정일 수 있다는 동양적 깨달음과 만물이 잣아들 듯 자신(주체성)을 가난하게 비우고 그 빈 자리에 신이 거하시길 기다리며 초탈할 때 비로소 은총이 성취될 수 있다는 신앙이 융합한 결과물이다. 「청노루」의 청노루가 고개 들어 응시하는 ‘구름의 세계’, 3장 ㉠의 “벼릴 것은 벼리고, 단념할 것은 아낌없이 씻어 버린 그 허전하게 가벼운 마음”과 3장 ㉡의 “모든 소망을 잃은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박목월, 『박목월 자선집 5-보라빛 소묘』, 삼중당, 1973.  
박목월, 이남호 편, 『박목월 시전집』, 민음사, 2003.  
박목월, 『박목월 수필 문학선』, 문학사상사, 2006.  
박목월, 정민 편, 『달과 고무신』, 태학사, 2015.

### 2. 단행본

-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류기종, 『기독교와 동양 사상』, 황소와 소나무, 2003.  
유동식, 한국문화신학회 편, 『한국문화와 풍류신학』, 한들출판사, 2002.  
유영모, 박영호 편, 『다석 유영모 어록』, 두레, 2002.  
정한모, 『현대시론』, 보성문화사, 1974.  
레이몬 파니카, 김승철 역, 『종교간의 대화』, 서광사, 1992.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레이몬드 B. 블레크니 편,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 다산글방, 1994.  
김바라 세이고, 민병산 역, 『동양의 마음과 그림』, 새문사, 1978.  
폴 틸리히, 차성구 역, 『존재의 용기』, 예영, 2004.  
프랑수아 줄리앙, 최애리 역, 『무미예찬』, 산책자, 2010.  
헤겔, 두행숙 역, 『헤겔의 미학강의 1』, 은행나무, 2010.

### 3. 논문

- 권혁웅, 「박목월 초기 시의 구조와 의의」, 『돈암어문학』 12, 돈암어문학  
회, 1999, 139-153쪽.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근원의식」, 『관악어문연구』 24, 서울대 국

- 어국문학과, 1999, 277-299쪽.
-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 연구」, 『한국시학연구』 24, 한국시학회, 2009, 39-66쪽.
- 금동철, 「박목월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연구」, 『우리말글』 32, 우리말글학회, 2004, 215-239쪽.
- 김인섭, 「정지용·박목월 신앙시의 대비적 고찰」,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291-318쪽.
- 김정두, 「다석 유영모의 신, 무 그리고 구원 이해」, 『신학논단』 87, 연합신학대학원, 2017, 7-39쪽.
- 손진은, 「박목월 시의 향토성과 세계성」, 『우리말 글』 28, 우리말글 학회, 2003, 233-258쪽.
- 유성호, 「사랑과 궁극적 근원을 향한 의지」,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201-222쪽.
- 이기상, <“태양을 꺼라!” 존재 중심의 사유로부터의 해방>, 김홍호·이정배 편,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동양적 기독교 이해』, 솔, 2002, 38-71쪽.
- 이상호, 「박목월 초기 시에 내포된 장자적 상상력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3,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119-146쪽.
- 이승원, 「환상의 지도에서 존재의 탐색까지」,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93-110쪽.
- 이재복, 「시와 정체공능의 미학」, 『비교한국학』 26, 국제비교한국학회, 2018, 241-272쪽.
- 이정배, 「다석 유영모의 동양적 기독교 이해와 얼 기독론」, 김홍호·이정배 편, 『다석 유영모의 동양사상과 신학-동양적 기독교 이해』, 솔, 2002, 134-169쪽.
- 진순애, 「박목월 시의 신화적 시간」,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473-489쪽.

최동호, 「한국 현대시와 종교적 상상」, 『한국시학연구』 11, 한국시학회,  
2004, 9-26쪽.

최승호, 「박목월론: 근원에의 향수와 반근대의식」, 박현수 편, 『박목월』,  
새미, 2002, 111-136쪽.

<Abstract>

The imagination of return to the one  
revealed in the early poems of Pak Mok-wol  
- Centered on the fusion of horizons of oriental  
aesthetics and Christian spirituality -

Kim, Jeong-Su\*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esthetic imagination of Mok-wol Pak's early poems, which were created by combining Christian spirituality with oriental thoughts, and explore its value and meaning. The image of nature that Mok-wol Pak's early poems mainly depicted was "attenuation", in which everything gradually wanes and disappears into nothingness. This image seems to contain the so-called romantic irony. The conventional evaluation that his early poems are nothing more than the autistic imagination of a sick soul is the result of focusing on this attribute. However, what the poet was trying to convey through the natural imagery of "attenuation" was a heart that "wanders like the moon in the clouds" (in "The Wayfarer") through a world that is futile and troubled. This includes both the oriental enlightenment that the ontological destiny, which must gradually fade away, can actually be a fulfilling process of returning to the one, and the Christian belief that grace can only be fulfilled when one empties oneself into poverty, transcendently waiting for the divine to dwell in the empty place.

---

\* Ulsan University.

Key Words: Mok-wol Pak, early poems, return to the one, attitude of transcendence, oriental aesthetics, Christian spirituality, and fusion of horizon

■ 논문접수 : 2023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23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23년 12월 19일

